

All In:
Thursday Morning Email Devotion for March 14, 2024

Aloha MPC ‘Ohana,

A new family recently started attending the church which Nan serves up in Wahiawa. They have a teenage son, a sophomore in high school. The young man’s parents told Nan some time ago that he would like to be baptized, and Easter Sunday was subsequently selected as the big day.

But, since Nan hadn’t had an opportunity to meet about this with the young man himself, she scheduled a meeting to talk with him last weekend. And, as one might expect a pastor would do, when Nan and this young man did talk, she of course made sure to go over the significance of what being baptized means – how, among other things, it means you are committed to following Jesus Christ for all your life.

So, having stressed that, Nan then asked the young man if he still wanted to go ahead and be baptized, was he really sure, ready, etc.?

But, no sooner had she asked than he answered without a moment’s hesitation. “Yes,” he said, “I am all in.”

I am all in... It strikes me that that’s a really great way to respond to any call which the Lord may place upon our lives, whether it be the call to follow him into the waters of baptism, or the call to follow him deeper into a life of prayer, or the call to follow him by serving others, etc., etc.

I am all in... In Nan’s denomination, they typically practice baptism by immersion.¹ In fact, the word baptize (*baptizo* in Greek) literally means “to immerse.”

Now, if, by chance, you were sprinkled rather than being dunked when(ever) you yourself were baptized, that does not mean that there was anything “wrong” with your baptism. Instead, the fact that the word baptism means “immersion” tells us what’s supposed to happen *after* we are baptized for *the rest of* our lives. And that is, we are supposed to let our whole lives become *immersed*, deeper and deeper and deeper with each passing day into the fathomless grace and goodness of God.

Or, to put it another way, the sacrament of baptism calls upon each and every one of us to be “all in” with Jesus. So, before we leave Lent behind, take a minute and join me in asking yourself, “Is that true *of me*? Am I all in with Jesus, or have I forgotten what my baptism really means?”

¹ In the Presbyterian Church of today, parents have the option either (1) to have their children baptized as babies (ie. infant baptism, usually by sprinkling) or (2) to wait until their children are old enough to decide to profess their own personal faith in Jesus by being baptized as believers (in which case either sprinkling or immersion are options).

Me ke aloha,
Pastor Ron

모두:
2024년 3월 14일 목요일 아침 이메일 묵상

알로하 MPC '오하나,
Nan이 Wahiawa에서 섬기는 교회에 최근 새로운 가족이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고등학교 2학년인 10대 아들이 있습니다.
그 청년의 부모는 얼마 전 난에게 그가 침례를 받고 싶다고 말했고, 그 후 부활절 일요일
이 큰 날로 선택되었습니다.
그러나 Nan은 이 문제에 관해 청년과 직접 만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지난 주말에 그
와 이야기하기 위해 회의를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라면 예상할 수 있듯이 Nan과 이 젊은이가 대화를 나눌 때 그녀는 물론 세
례를 받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확실히 설명했습니다. 그리스도 당신의 평생
동안.
그래서 Nan은 그 점을 강조한 후 청년에게 아직도 세례를 받고 싶은지, 정말로 확신하
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등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묻자마자 그는 한 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예”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저는 올인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
그것이 주님을 따라 세례의 물 속으로 들어가라는 부르심이든, 더 깊은 기도의 삶으로
그분을 따르라는 부르심이든,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 삶에 맡기시는 모든 부르심에 응답
할 수 있는 정말 훌륭한 방법이라는 사실이 저에게 놀랍습니다. 또는 다른 사람에게 봉
사함으로써 그를 따르라는 부르심 등.
나는 올인한다... Nan의 교단에서는 일반적으로 침수 세례를 시행합니다. [1] 사실,
세례를 베푸다(그리스어로 _바티조_)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물에 담그다”를 의미합
니다.
자, 만약 당신이 세례를 받을 때 우연히 물에 젖지 않고 물을 뿌렸다고 해서 그것이 당신
의 세례에 “잘못”이 있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대신, 세례라는 단어가 “침수”를 의미한다는 사실은 우리가 세례를 받은 _후_ _남은_
생애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를 말해줍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온 삶이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선하심에 더욱
깊이, 더 깊고, 더 깊이 빠져들도록 해야 합니다.
달리 말하면, 세례성사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 “온전히” 있으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사순절을 떠나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스스로에게 “그게 _나도_ 사실인가?”
라고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세례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잊어버렸습니까?”

나 알로하,
론 목사

* * *

[1]오늘날 장로교에서 부모는 (1) 자녀가 아기 때 세례를 받도록 하거나(예: 일반적으로 물뿌림에 의한 유아 세례) 또는 (2) 자녀가 세례를 받기로 결정할 만큼 충분히 성장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신자로서 세례를 받음으로써 예수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을 고백합니다(이 경우 물뿌림이나 침수는 선택 사항입니다).